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김 상 배
(서울대학교)

< 차 례 >

- | | |
|------------------------|-----------------------|
| I. 머리말 | IV.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과 응용 |
|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의 개념 | V. 동아시아 세력망과 한국의 위치권력 |
| III. 구조적 공백 이론의 원용과 응용 | VI. 맺음말 |

· 주제어: 네트워크 이론, 구조적 공백, 위치권력, 중견국, 중개자, network theory, structural holes, positional power, middle power, broker

【한글초록】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의 성과를 원용하여 중견국(middle power)의 외교전략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기존의 연구는 중견국이나 ‘구조’의 개념을 주로 개별 행위자들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 의거해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글에서 원용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의 이론은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견국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남북한과 주변 4개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경험적 사례에 적용할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안하였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서 재편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아시아 질서와 미중관계, 이러한 구도 안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다층적 성격, 그리고 ‘중개자(broker)’로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방향 등이 거론되었다.

I. 머리말

최근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닥칠지도 모를 외교적 선택에 대한 고민도 깊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 급부상하는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양자택일을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핵개발 시도와 다양한 군사적 도전, 그리고 평화공세까지도 병행하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도 21세기 한국 외교에 또 다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가까우면서도 먼 상대인 북한과 한반도의 향배에 이해관계가 걸린 주변 4개국 사이에서 소위 6자회담의 테이블에 앉은 한국이 담당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듯 미묘하게 얽힌 미중 관계와 해법을 찾기 힘든 북한 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2010년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더욱 쌓여만 가고 있다.

사실 주변 4강(強)이라고 불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국가적 안위를 걱정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 개항을 전후한 무렵 19세기 조선의 외교사가 그러하였고, 해방 이후 미소 냉전의 와중에 겪었던 남북한의 분단사가 그러했으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거치면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도 비슷한 도전들이 엄습했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로 물꼬가 트인 탈냉전기 한국 외교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듯 동아시아에서 주변 국가들과 남북한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벌이는 구도가 지속되는 한, 한국 외교의 오래된 고민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한 한국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주변 4개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조건은 한국에게 위협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기회 활용에 대한 기대는 2000년대 들어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동아시아 중심국가론’과 같은 구상을 출현케 했다.¹⁾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19세기 국제정치학의 잣대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거나, 또는 주변정세의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모처럼 밝힌 기회와 불씨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2010년의 G20 서울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한국 외교가 냉전 시대의

1) 한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기정,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권 (4)호 (2005), pp. 149-174; 송백석,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2)호 (2006), pp. 153-183; 배종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pp. 93-118; 이해정, “(자주의) 운명인가?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11); 이근,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11).

소극적인 개도국 외교의 발상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의 발상을 내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²⁾

그러나 향후 한국이 주변 4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부대끼면서 중견국의 외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전과 같은 자기중심적 발상을 넘어서 주위 국가들의 세력구도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역할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개별 행위자 차원에서만 단편적으로 외교전략을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제공하는 선택지의 내용을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 4개국과 남북한이 형성하는 구조가 한국에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은 얼마나 될까?

사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도 국제정치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국가 간의 세력분포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oP)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단극-양극-다극체제 등으로 대별해서 파악하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신현실주의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구조’의 전반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데에는 유용한 반면, 기본적으로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이나 속성의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파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가 선택하는 전략과 국제정치의 구조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 상관관계나 행위자-구조 간의 동태적 변화를 밝혀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의 성과를 원용하여 국제정치의 구조를 좀 더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펼치고자 한다.⁴⁾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사회-네트워크 이론(social-

2) 2010년 10월 새로 취임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취임사는 총력외교, 복합외교,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소프트 파워 외교를 중견국가로서 한국 외교의 4대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외교의 발상을 천명하였다. http://www.mofat.go.kr/press/focus/index.jsp?sp=/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3FtypeID=6%26boardid=9795%26seqno=329851%26tableName=TYPE_DATABOARD (검색일: 2011. 4. 17).

3)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를 참조.

4) 최근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려는 시도로는 Emilie M. Hafner-Burton,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2009), pp. 559-592; Miles Kahler (ed.),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Zeev Maoz,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05); 민병원,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2009), pp. 391-405;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등을 참조.

network theory)’에서 말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구조(relational configuration)’로서의 구조 개념이다.⁵⁾ 신현실주의가 논하는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 대비해서 볼 때 일종의 ‘중범위(meso)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범위에서 파악된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상호작용하는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유용하다. 이 글은 이러한 중범위 구조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를 응용하여 개발된 ‘문화적 공백(cultural holes)’이나 ‘착취혈(exploit)’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 글은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펼쳐지는 행위자의 전략을 파악하는 일환으로서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개념인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 응용 개념들에 주목하였다. 위치권력 이론은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생성되는 권력을 탐색한다. 위치권력 이론은 기존의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즉 지정학적 위치나 영토의 크기 등)이나 행위자들이 보유한 특정 자원(예를 들어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각종 부존자원 등)에 착안하는 ‘자원권력(resource power)’의 개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로부터 생성되는 권력을 논한다. 이러한 위치권력에 대한 논의가 지니는 유용성은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권력론의 관점에서 그려낸다는 데 있다.

이렇듯 네트워크 이론의 성과를 원용하고 이를 응용함으로써 이 글은 중견국의 외교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적 플랫폼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기존 연구는 중견국의 개념을 주로 행위자에 고착된 속성론에 의거해서 이해함으로써 구조의 맥락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글에서 원용하는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의 이론은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견국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함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은 남북한과 주변 4개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볼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안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여 생성하는 동아시아 세력망(network of power; NoP)과 그 안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구조적 공백의 성격,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중개자로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방향 등이 거론되었다.

5) 이러한 시각을 제시한 최근 연구로는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2007), pp. 253-271; Daniel Nexon,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등을 참조.

6)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제기된 최근의 중견국 외교전략 연구로는 Stacie E. Goddard,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2009), pp. 249-281; 김상배,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pp. 7-33 등을 참조.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기하는 구조의 개념과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되는 중견국의 개념을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조건을 탐구하는 이론적 논의로서 구조적 공백 이론과 그 응용 개념인 문화적 공백과 착취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권력론의 연속선상에서 위치 권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응용하여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세력망의 성격과 그 안에서 한국이 위치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의 함의를 점검해 보았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종합·요약하고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 중견국 외교전략의 이론적 연구가 제기하는 과제를 짚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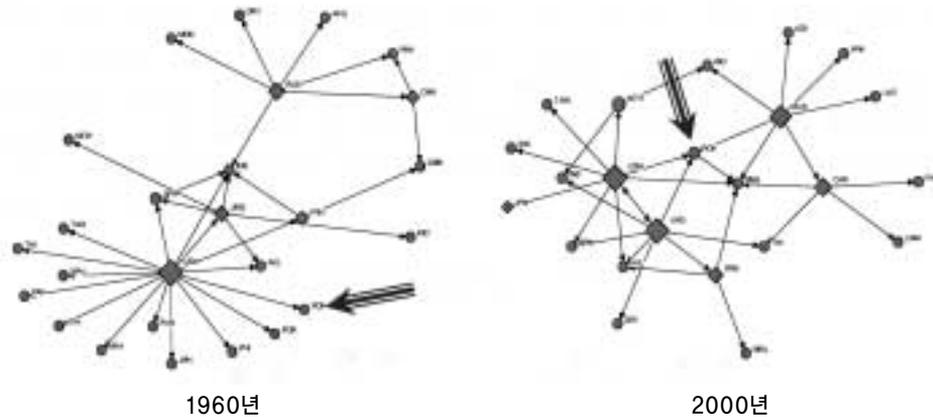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의 개념

국제정치에서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개념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제정치 이론가들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은 암묵적으로 ‘행위자들의 내적 속성(categorical attributes)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체’로서 ‘구조’를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구조는 무정부 상태의 조건이나 권력의 상대적 분포, 또는 규제적이고 구성적인 규범이나 제도의 집합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개념화가 지니는 특징이자 단점은 국제정치에서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를, 행위자들이 벌이는 상호작용의 관계적 맥락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내적 속성이라는 단위 수준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속성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논하면서도 정작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 자체와는 유리된 그 무엇으로 구조를 파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⁷⁾

이에 비해 이 글에서 주목하는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계적 구도, 즉 네트워크 그 자체를 구조로서 보는 것이다.⁸⁾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구조의 개념을 국제정치 분야에 도입하면, 구조의 개념을 단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고도,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패턴으로부터 국제정치의 구조를 개념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7) Nexon (2009), p. 24.

8) Barry Wellman and S. D. Berkowitz,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그림 1〉 아시아의 무기이전 네트워크⁹⁾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sociogram)을 그리거나 또는 다양한 개념의 개발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 즉 구조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펼쳐왔다.¹⁰⁾ 특히 최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s analysis, SNA)의 방법론적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분야만을 사례로 들더라도, 국제기구의 가입망, 국가 간 동맹의 패턴, 무기이전의 네트워크, 국제무역 네트워크, 각종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 유학생의 교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은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사용한 국제정치 분야의 일례를 보여주는데, 1960년과 2000년에 아시아 25개국 간에 이루어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소시오그램으로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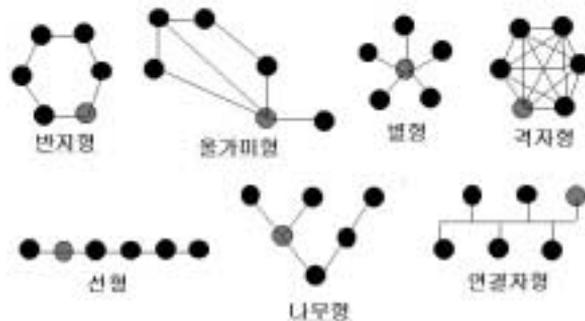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서는 잡히지 않는 중범위 구조의 실체와 그 가변성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조 분석이 주는 좀 더 큰 유용성은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 행위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사회-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내적 속성을 지닌 행위자라 할지라도 주위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규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맺는 링크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어느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의 상당 부분이 비롯되기 때문이다.¹¹⁾

9) 김형민,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 341-342에서 응용. 화살표는 필자가 추가.

10)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2007).

11) Goddard (2009), p. 257. 유사한 시각에서 '위치'와 국제정치 권력의 문제를 탐구한 연구로는 Emilie M. Hafner-Burton and Alexander H. Montgomery,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좀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지형도(network topology)의 사례를 원용해 보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은 색으로 표시된 주위의 다섯 노드가 서로 링크를 맺는 방식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하여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가 변함에 따라서, 회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그 내적 속성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일곱 가지의 상이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예상된다. <그림 2>에서 여섯 행위자가 형성하는 구조의 패턴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벌이는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만약에 회색 노드를 한국에 비유한다면, 소위 6자회담의 테이블에 앉는 각국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네트워크 지형도¹²⁾

마찬가지로 앞서 1960년과 2000년의 동아시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다룬 <그림 1>도 네트워크상에서 ‘위치’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1>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의 무기이전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한국이라는 노드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네트워크상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미국과의 링크만 있던 시절과 2000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과도 링크가 있던 시절에 무기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선택지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무기이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냉전기의 개도국으로부터 탈냉전기의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외교전략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중견국 연구는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읽어내는 ‘구조의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행위자 차원의 속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2006), pp. 3-27을 참조.
 12)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Network_topology)에서 응용. 회색 노드의 색깔은 필자가 변경.

성이라는 시각에서 중견국을 이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중견국의 개념을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자원권력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행위자들이 내보이는 행태적 속성이나 기질에 의거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치 현실에는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그 중간 규모의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소위 ‘중견국 스타일(middle-power-state-ship)’의 행태를 보이는 동류집단의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논하는 기본전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최근 중견국으로 인식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속성론의 잣대를 일정 부분 통과했기 때문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론만으로 중견국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기존의 속성론은 어느 나라가 중견국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 속성론은 멤버십의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전략적 행위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행태적 속성이나 기질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논제들을 탐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도 역시 행위자 차원의 고정된 속성으로 환원하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견국이 취하는 외교전략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견국의 개념 자체를, 행위자의 속성이 아닌, 시스템상의 구조적 위치로부터 논하는 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견국으로 구분되는 국가가 내보이는 특정한 행태는 그 국가가 주위의 다른 국가들과 맺는 관계의 패턴, 즉 네트워크의 구조와 그 구조 하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¹⁴⁾

만약에 중견국이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위치로부터 부여되는 개념적 범주라면, 네트워크의 구조로부터 부여되는 중견국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러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중견국이 발휘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¹⁵⁾ 국제정치에서 중개자의 역할은 중견국보다는 강대국이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근대 국제정치에서 약소국들 사이에서 국제적 분쟁과

13) Car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Andrew F. Cooper (ed.),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London: Macmillan, 1997); Jonathan H. Ping,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Hampshire and Burlington: Ashgate, 2005);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pp. 7-36.

14) Goddard (2009)의 문제제기는 국제정치의 변화에서 혁신가(entrepreneur)의 개념(반드시 중견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을 이러한 시각에서 설정하고 있다.

15) 중견국에 해당하는 ‘middle power’라는 말에서 ‘middle’이란 ‘중간(中間)’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개(仲介)’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middle’은 ‘속성’이기도 하지만 ‘위치’와 ‘역할’을 강하게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위와 아래 그리고 좌와 우의 다른 행위자들이 없다면 중간이고 중개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middle’은 태생적으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 통칭해서 사용한 중견국(中堅國)의 개념에는 속성론으로 본 ‘중간국(中間國)’ 또는 ‘중진국(中進國)’의 측면이외에도 관계구조론으로 본 ‘중개국(仲介國)’의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개자의 역할을 자처한 측은 분쟁 당사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강대국이였다. 흔히 중재자(仲裁者; mediator)라고 불리는 역할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중개는 덩치가 큰 행위자가 작은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강자에 의한 중개(또는 중재)’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입장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네트워크상에서 상호작용을 벌이는 행위자들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의 균열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견국이나 약소국에도 중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중개자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도에서 그냥 놔두면 단절된 채로 남아 있을 행위자들을 이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 행위자이다. 이렇게 균열을 메우는 과정에서 중개자는 자신이 차지한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위치가 제공하는 이점을 바탕으로 특정한 종류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네트워크-행위자-역할-중개-위치-권력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를 펼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개자의 역할을 낳는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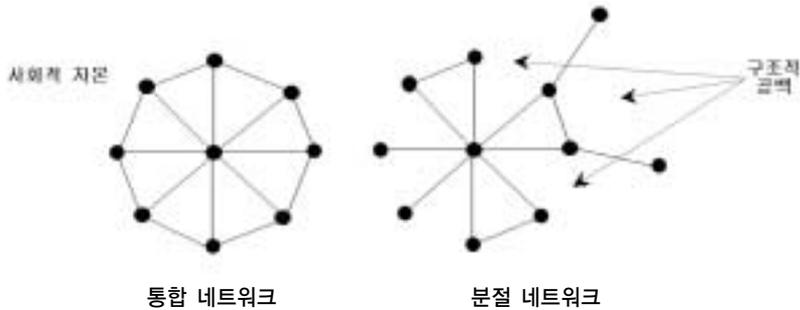
Ⅲ. 구조적 공백 이론의 원용과 응용

네트워크상에서 노드 행위자들의 밀집도나 상호작용의 패턴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각기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들을 생성시킨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유형은 노드들이 연결되는 정도, 특히 링크의 유무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밀집되고 통합된 형태의 네트워크가 생성될 것이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분절된 형태의 네트워크가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림 3>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즉 노드와 링크가 상대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네트워크와 노드와 링크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분절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대별해 볼 수 있다.¹⁶⁾

<그림 3>의 왼쪽에 있는 통합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의 링크가 뻗뻗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에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 통합 네트워크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유사한 관념이나 합

16) Ronald Burt,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Nan Lin, Karen S. Cook, and R. S. Burt, Aldine de Gruyter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Transaction, 2001); Ronald S. Burt,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의된 규칙, 그리고 공유된 이해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균열이나 공백이 적거나 또는 없어서 중개의 역할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가 지니는 장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¹⁷⁾



〈그림 3〉 통합 네트워크와 분절 네트워크

이에 비해 〈그림 3〉의 오른쪽에 있는 분절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들 간의 링크가 성기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소수의 행위자들을 경유해서만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관계들은 밀접하고 공식적이며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소원하고 비공식적이고 비규칙적이다. 이러한 분절 네트워크는 문화적으로 서로 이질적이어서 서로 분화되고 구별되며 더 나아가 불협화음을 낳거나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은 서로 상이한 관념과 상징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규칙과 규범은 서로 마찰한다.¹⁸⁾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영학자인 버트(Ronald S. Burt)는 이러한 분절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균열을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내고 있다. 구조적 공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전략적인 목적으로 한두 개의 링크를 추가로 연결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 개념의 기저에는 중개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확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만약에 당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을 전략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과 중개의 행위는 공백을 메우는 자로 하여금 정보의 이득과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것을 예상케 한다.¹⁹⁾

17)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8) Burt (2005).

19) Ronald S. Burt,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사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사회학에서 출현한 네트워크의 개념들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논의와 관련된 일반적 통념은 노드들 간의 연결 고리가 너무 약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지 않거나(<1-영역>의 약한 고리의 단점), 역으로 노드들 간의 연결 고리가 강할수록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4-영역>의 강한 고리의 장점). 이러한 논의들은 <그림 3>에서 살펴본 통합 네트워크의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들이 가능한 한 링크를 뺄뺄하게 맺는 것이 그 네트워크상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²⁰⁾

	단 점	장 점
약한 고리	<1> 일반적 인식	<2> 그라노베터의 논의
강한 고리	<3> 버트의 논의	<4> 사회적 자본론

<그림 4> 강한 고리와 약한 고리

이에 비해 그라노베터(Mark S. Granovetter)의 논의는 일반적 통념을 넘어서 ‘약한 고리의 장점’ <2-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새롭다.²¹⁾ 그라노베터의 논의는 강한 고리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동시에 제약이 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기회는 약한 고리의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에 새롭게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빈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같은 집단의 사람들보다는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다른 집단의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훨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3-영역>에 묘사된 버트의 구조적 공백에 대한 논의는 그라노베터가 제시한 개념과 짝을 이루는,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약한 고리의 장점을 논한 그라노베터와는 달리 버트는 그 반대 방향으로부터 ‘강한 고리의 약점’을 지적한다. 버트에 의하면, 강한 고리의 네트워크, 즉 통합 네트워크가 지닌 문제점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 고리가 지나치게 밀집되고 중복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행위자들이 느슨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한 고리를 구성하는 분절 네트워크가 오히려

20) James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Sun-Ki Chai and Mooweon Rhee, “Confucian Capitalism and the Paradox of Closure and Structural Holes in East Asian Firm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1 (2009), pp. 5-29.

21) Mark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3), pp. 1360-1380.

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약한 고리들의 존재는 네트워크상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중개의 역할을 논할 여지를 낳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버트는 이렇게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의 역할을 경영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구조적 공백은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그 공백을 메움으로써 경쟁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두 집단 간에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활동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공백은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마치 전기회로의 절연체와도 같이 양 집단이 각기 상이한 정보흐름의 회로를 구성케 한다. 따라서 구조적 공백은 사람이나 집단들 간의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데에서 경쟁력을 모색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절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중개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의 교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교환’ 과도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기존의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들의 정체성이나 그 행위자들이 배태되어 있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버트의 구조적 공백 개념도 네트워크 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행과 담론 및 의미 등과 같은 문화 변수에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²²⁾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흐름을 논할 경우 적어도 행위자들이 배태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된 중개의 전략이 많은 경우에 실패를 맞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적 공백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제시되는 ‘문화적 공백(cultural holes)’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버트의 구조적 공백이 주로 정보의 흐름을 잇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화적 공백은 ‘의미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버트가 제기한 핵심은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정보의 이득과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전략적 중개에 있다. 이에 비해 문화적 공백의 개념은 구조적 공백의 이면에 존재하는 관행과 담론 및 의미의 공백에 주목한다. 아무리 충분히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문화적인 형태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는 공백은, 같은 종류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공백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예 ‘서로 비교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incommensurable)’, 행위자들의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공백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적 공백의 개념에 의거하면, 전략적 중개를 논하더라도 네트워크상에서의 단순히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의미와 담론 및 내용의 흐름을 중개할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²³⁾

22)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예외적으로 문화 변수에 대한 관심을 보인 연구로는 Harrison C. White, *Identity and Control: How Social Formations Emerge*, Secon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을 참조.

앞서의 구조적 공백과 문화적 공백이 네트워크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였다면, 네트워크가 지니는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공백에 대한 논의인, '착취혈(exploit)'의 개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보면 그 부산물로서 버그(bugs)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빈틈은 해커들이 외부에서 침투하여 시스템의 변경이나 훼손을 시도하는 목표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상의 빈틈을 착취혈이라고 한다. 이러한 빈틈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몇 개의 빈틈이 있더라도 네트워크가 다운되지는 않지만, 그 빈틈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통제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해커들의 공격은 어느 한 부분의 하드웨어의 파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의 교란을 노리기 때문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각종 악성코드들은 바로 이러한 호환성의 빈틈으로 침투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착취(exploit)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²⁴⁾

착취혈의 개념은 버트가 제시한 구조적 공백의 개념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를 원활히 작동하게 하려고 네트워크상의 공백을 메우는 중개의 긍정적 역할을 논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착취혈은 이전에는 제대로 작동하던 네트워크에 오작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의미의 공백을 논하는 개념이다. 공백의 의미가 반대인 셈이다. 또한 구조적 공백의 개념에서는 모든 노드가 관련되지만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려는 행위자의 전략이 관건이다. 기업 경쟁력의 제고나 사회적 자본의 활용 등이 구조적 공백 이론의 논제인 이유이다. 이에 비해 착취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빈틈에 대한 논의이다. 다시 말해, 착취혈은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키는 '구조적 블랙홀(structural black holes)'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착취혈의 논의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중개가 논의되기보다는 해커들의 공격, 즉 일종의 '부정적 중개'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상의 흐름은 일정한 형태의 공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복합적으로 '의미의 흐름'이 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위자 차원에서 보는 상호작용성이 문제제시되는 공백의 의미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호환성의 빈틈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중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공백 또는 빈틈이 만들어내는 다층적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트워크상의 공백을 다층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하려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우려는 중개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상의 흐

23) Mark A. Pachucki and Ronald L. Breiger,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 pp. 205-224.

24) Alexander R. Galloway,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04); Alexander R. Galloway and Eugene Thacker,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름에서 중개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류의 권력을 발휘하는가?

IV.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과 응용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행위자들 간에 오가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관계의 단절, 즉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행위를 통해서 중개자는 한층 더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에서 중심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고, 아울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노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브(hub)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허브의 위치를 차지한 중개자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개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 의미에서 권력의 원천으로서 작동하게 되는가? 여기서 중개자가 발휘하는 권력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권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사회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위치권력’ 이론으로부터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²⁵⁾ 말 그대로 위치권력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행위자가 특정한 ‘위치’의 노드를 차지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권력은 노드 행위자들의 속성 그 자체가 아니라 노드들을 연결하는 링크의 숫자와 형태, 주위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 그리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반적인 구도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치권력은 행위자가 보유하는 자원으로부터 권력을 논하는 기존의 자원권력 개념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위치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노드와 링크가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질적 속성으로부터 권력의 발생과 작동을 탐구하려는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렇게 위치권력을 논하는 유용성은 네트워크 구도에서 특정한 위치를 장악한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통(通)’하고 ‘흐르게(流)’ 함으로써 발휘하는 소위 중개자의 권력을 부각시킨다는 데 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의 요지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

25) 위치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Roger V. Gould and Roberto M. Fernandez, “Structures of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1989), pp. 89-126; 장덕진, “정치권력의 사회학적 분해: 자원 권력과 네트워크 권력,” 김상배 (편),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2009), pp. 197-241을 참조.

26)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David Singh Grewal,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Manuel Castells,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pp. 397-408를 참조.

어나 화폐 등이 발휘하는 중개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권력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근대 외교사에서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 사이에서 영국이 담당해 온 중개의 역할과 영향력도 좋은 사례이다. 사실 이러한 위치권력 또는 중개권력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제였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관계’와 ‘위치’를 논하는 경우에도 주로 단편적인 양자 관계이거나 평면적인 다자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위치를 부분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쳤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 제기하는 위치권력 또는 중개권력에 대한 논의는 국제정치학의 권력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드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위치권력 또는 중개권력을 행사하는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자가 가장 많은 권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은 ‘중심성(centrality)’을 장악하는 자의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사회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다. 여기서 중심성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심성을 이해하면, 무조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만 해서 권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심 노드에 어떠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노드들이 중심 노드와 어떠한 관계(즉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다양해진다.²⁷⁾

이러한 권력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중심성의 논의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프리만(Linton C. Freeman)의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²⁸⁾ 여기서 연결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된 링크의 숫자를 가능한 한 많이 늘림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중심성이다. 어떠한 형태로건 관계를 맺어서 끊어진 링크가 없어야 다른 노드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연결 중심성은 중심성 논의의 기초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상의 노드들과 가장 많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한다.

둘째, 근접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노드와 노드들 간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깝게 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중심성이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최소의 단계(즉 링크)를 거쳐서 가장 많은 노드들과 소통하는 위치에 있는 노드이다. 이러한 근접 중심성은 최소한의 매개 노드에게만 의존하여 최대한의 다른 노드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독립능력을 반영한다. 앞서의 연결 중심성이 관계 맺기의 숫자를 의미한다면 근접 중심성은 관계 맺기의 거리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주위에 많은 노드들을 모아서 근접 중심성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노드가 위치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27) 장덕진 (2009), p. 218.

28) Linton C. Freeman,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1977), pp. 35-40; Linton C.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1979), pp. 215-239.

끝으로, 매개 중심성은 위치권력의 개념 일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개권력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매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노드가 다른 노드들의 사이에 놓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될 노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매개 중심성은 노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노드와 노드,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노드 군(群)과 노드 군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중개권력으로 통한다. 이러한 중개권력은 주변 노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내용이 무엇이나, 또는 그 중개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그 권력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개자의 역할과 권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개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를 펼치고자 한다. 특히 앞 장에서 다룬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하나의 기준은 단순히 끊어진 링크를 잇고 정보를 흐르게 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의미의 흐름까지도 중개하는 차원이나의 기준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구조적 공백과 문화적 공백을 구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같은 종류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성' 만을 제공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행위자 사이에서 '호환성' 까지도 중개하는 차원이나의 기준이다. 이는 구조적 공백의 논의와 착취혈을 구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볼 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중개자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을 대별해 볼 수 있다.²⁹⁾

	상호작용성의 중개	호환성의 중개
정보의 중개	〈1〉 연결자 (connector)	〈2〉 변환자 (transformer)
의미의 중개	〈3〉 전달자 (messenger)	〈4〉 번역자 (translator)

〈그림 5〉 중개자의 유형³⁰⁾

첫째,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연결자(connector)'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이다. 이는 문지기(gatekeeper)나 매개자(intermediary)가 행사하는 권력과도 같다. 이들은 동일한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여 상호작용성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을 이어주는 것이다. 각종 전기 스위치나 전기코드의 멀티 탭, 또는 인터넷 주소 공유기 등의 기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연결자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나 요지를 장악하고서 문을 열고 닫는

29)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pp. 397-408.

30) 김상배 (2008), p. 398에서 응용.

시간과 경우 및 방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둘째,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변환자(transformer)’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이다. 공급 전압과 사용 전압의 형식(form)을 바꾸어(trans) 주는 트랜스나 어댑터(adapter), 정보통신과 인터넷 분야의 각종 기술표준이나 프로토콜, 서로 다른 화폐의 교환을 돕는 환율 등이 모두 이러한 변환자의 사례이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는, 착취철의 경우처럼, 호환성이 문제가 되는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따라서 변환자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의 핵심은 형식이 다른 것들에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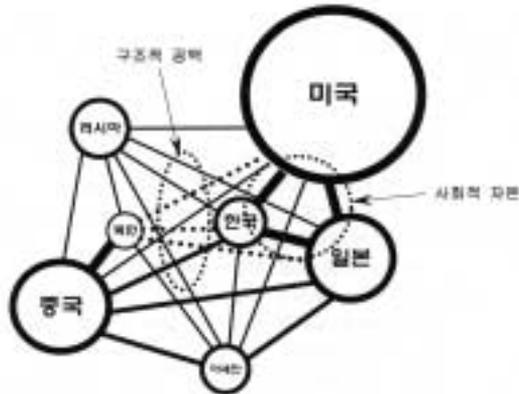
셋째, 같은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미의 흐름’을 이어주는 ‘전달자(messenger)’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이다.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호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다. 전달자의 역할이 앞의 두 유형과 다른 것은 문화적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미의 단절을 중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전달자의 위치권력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생산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정보의 편찬뿐만 아니라 지식의 편집을 통해서 의미의 전달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권력이 행사된다.

끝으로,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미의 흐름을 중개하는 ‘번역자(translator)’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텍스트의 내용을 풀어주는 ‘해석자’나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자’ 등의 역할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번역을 넘어서 상징과 규범 및 이데올로기의 번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자는 ‘상징적 차원의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주의의 행위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구 그대로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고, 더 나아가 번역자의 이익에 맞추어 의미의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상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중개자들의 위치권력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이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의 내용과 권력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네트워크의 위치 변수가 모든 행위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떠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건 행위자들이 취하는 자율성의 영역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자의 전략은 네트워크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구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전략인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하다. 다음 장에서는 동아시아 세력망이라는 맥락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한국이 위치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여태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 지평으로 옮기고자 한다.

V. 동아시아 세력망과 한국의 위치권력³¹⁾

중개자로서 한국의 위치권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나이(Joseph S. Nye)는 외교전략의 추진에 있어 이렇게 주위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황지성(contextu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파한 바 있다.³²⁾ 강대국보다는 구조의 형세와 변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견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지성을 갖추는 것은 중견국의 외교전략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준다. 다시 말해,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주위 상황을 단순히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구조 하에서 자신의 위상을 잃어내는 좀 더 복잡한 ‘위치지성(positional intelligence)’을 필요로 한다.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동아시아 중심국가론’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지성과 위치지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³³⁾

이 글에서 전개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상황지성과 위치지성을 논하는 핵심은 우선 구조적 공백의 소재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세력망(NoP)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6〉은 엄밀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그린 것이라기 보다는 대략의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직관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현재 가용한 국력, 즉 노드가 보유한 자원권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군사비 지출과 국내총생산(GDP)에 비추어 대략 각

31) 동아시아 세력망 속에서 위치권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김상배,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권 (3)호 (2011), pp. 5-40를 참조.

32) Joseph S. Nye,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3) 하영선·김상배 (편) (2010), p. 80에서 응용.

노드의 크기와 테두리 선의 굵기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일곱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그림을 그리는 데 고려한 지표는 정치군사 동맹의 유무와 강도, 무역교류의 빈도, 양국 간의 친소(親疎) 관계 등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평가하여 네 단계로 구별하여 그렸다. <그림 6>는 가상도이지만 단순히 세력균형(BoP)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국제적 상호작용의 관계구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세력망의 그림이 갖는 유용성은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특히 사회적 자본이나 구조적 공백 등과 연결 지어 중개자의 역할을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림 6>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의 중앙에 점선으로 그려진 세 개의 링크이다. 이것들은 동아시아 세력망에 존재하는 ‘약한 고리’인데, 모두 북한과 연결되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링크이다. 지난 10여 년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들 약한 고리가 동아시아에서 구조적 공백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야기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 일본인 납치 사건 등을 놓고 형성된 북한과 일본 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한층 경색된 남북한 관계 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문제가 최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열리고 있는 소위 6자회담의 주요 의제임은 물론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함정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주변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은 한국이 나서서 메움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주변 4개국 이 벌이는 ‘연결의 게임’과 북한이 벌이는 ‘단절의 게임’의 사이에서 ‘중개의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의 게임’을 펼치는 미국의 네트워킹 전략과 ‘고립의 게임’을 펼치는 북한의 역(逆) 네트워킹 전략 사이에서 한국은 소위 관문(gateway)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자’로서의 위치권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최소한 남북한의 링크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남북한의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중개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개자 역할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6>의 동아시아 세력망을 좀 더 큰 구도에서 보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추구할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케 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러 삼각관계와 대치하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삼각관계가 통합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면, 북-중-러 삼각관계는 분절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는 구조적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양대 네트워크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경우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은 한-미-일 삼각관계를 지탱하는 강한 고리의 장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반작용으로서 파생될 대중 관계나 북-중-러 삼각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요컨대, 한국은 ‘강한 고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약한 고리’의 장점

을 새롭게 활용하는 연결자로서의 중개권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개자로서 한국의 위치권력은 북한과 주변 4개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관계를 한편으로는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끊는 복합적인 '연결망 외교(networking diplomacy)'를 통해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끊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중심성(즉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어느 고리는 강화시키고 다른 고리는 약화시키는 비대칭적 관계조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위치권력이 발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계조율이 단순히 맺고 끊거나 또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개자의 역할이 네트워크 흐름의 호환성을 통제하는 변환자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네트워크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구조적 공백보다 좀 더 복합적인 성격의 문화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서 형성된 북한과 주변 국가들(특히 미국) 사이의 공백은 단순한 '정보 흐름의 단절'을 넘어서 '의미 흐름의 단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외교전략이 닫고 선 합리성의 기준이나 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주변 국가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중개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흐름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독특한 관계에 있는 한국이 질적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케 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중개자로서 한국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의 흐름 또는 의미의 흐름까지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편찬자 또는 편집자의 권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상의 흐름을 잇는 사회문화적 번역자의 역할에서도 찾아진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류(韓流) 모델은 한국이 단순한 의미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번역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을 보인 모델의 좋은 사례이다. 소위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에 동아시아의 독특한 정서적 취향과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가미하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한 중개모델이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한국이 이룩한 정치경제적 발전모델(소위 '서울 컨센서스')도 한국과 비슷한 경로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전수할만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0여년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은 정치적 권위주의를 감내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도국 모델(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시작하여 시장경제의 성숙을 바탕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선진국 모델(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르는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³⁴⁾

34)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2007).

이러한 사회문화와 정치경제 분야의 거시적 중개자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은 네트워크상의 교차로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위치권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양과 서양,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차로에 놓인 한국은 기존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전달 또는 번역의 과정에서 중개자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발명할 필요는 없다. 중개자가 전해주는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새로운 '내용'일 필요는 없다. 다만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번역하여 주위의 행위자들을 엮어줄 수 있으면 된다. 위치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엮어내서 네트워크의 공백을 잘 메우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와는 다른 의미의 공백인 착취혈이 동아시아 세력망 속에서 한국의 위치권력에 주는 의미도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이 중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논이라면, 착취혈은 '기회의 창'이 역으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진적 고립전략이나 무모한 도발전략 또는 북한체제의 급변사태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논의이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구조적 공백이 끝내 메워지지 않고 방치되어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러한 사태가 동아시아 세력망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가적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교가 여러 분야에서 내비치고 있는 개도국적 성향이나 민족주의적 반응,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관행이나 의식 등은 현재로서는 일종의 '구조적 블랙홀'로 작동할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취혈은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는 빈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미묘한 위상은 이러한 빈틈을 공격하는 데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빈틈을 보완하고 메워주는, 일종의 '패치파일 업데이터(patch-file updater)'와 같은 역할을 요구한다. 앞서의 연결망 외교의 개념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선(즉 링크)'으로 잇는 전략에 주목한다면, 착취혈에 대응하는 틈새외교는 네트워크상의 빈틈을 '면(즉 프로그램)'으로 메운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관건이 되는 것은 한국이 프로그램들의 틈새에 호환성의 요소를 제공하는 소위 '대안적 중개자(alternative broker)'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대안적 중개자의 역할은 최근 국제기구 외교의 장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강대국 표준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틈새표준'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강대국 표준의 '규범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 등이 사례로 거론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 그리고 착취혈 등은 이미 존재하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그림 6>의 동아시아 세력망을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상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따라서 다르게 쟁점에 관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중개자로서의 위치권력도 이미 고정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색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견국 한국의 외교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연결자-변환자-전달자-번역자의 네 가지 중개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 글은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중견국의 외교전략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특히 기존의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원용하여 중견국의 외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공백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백이나 착취혈 등과 같은 응용 개념들에 비추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망의 성격을 이해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러한 공백들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생성되기도 하지만 의미의 흐름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각 요소들 간의 호환성이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단연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북핵 및 북한 문제로 인해서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다층적인 의미의 공백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을 둘러싼 공백을 메우는 것은 '상호작동성'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치체제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변수들을 중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 문제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인 동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착취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중개를 통해서 얻는 것만큼이나 그냥 방치해두면 잃는 것도 많은, 기회와 함정이 병존하는 숙제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세력망의 다층적 공백을 메우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글은 위치권력과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원용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세력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 즉 위치지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에 조응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공백과 그 응용 개념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연결자-변환자-전달자-번역자 등으로 대별되는 중개자의 역할과 각각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위치권력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제기된 향후 연구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네트워크 구조와 중개자의 역할이라는 양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상관관계가 형성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제기한 네트워크의 구조와 중개자의 권력에 대한 논의가 중견국이 추구할 외교전략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한 모든 행위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구조적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자로서 중견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은 한국으로 하여금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을 예의주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도 하에서 한국이 추구하려는 중개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강자에 의한 중개'가 아닌 '약자에 의한 중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중견국의 외교전략이 지향할 이론적인 방향을 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제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평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견국 한국이 당면할 가장 큰 숙제들로서 좀 더 면밀한 경험적 천착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아울러 최근 G20 서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무르익은 다자외교의 장에서 중견국 한국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글에서 원용한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의 이론은 중견국 한국의 외교전략을 고민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정.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권 4호 (2005).
-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 _____.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 _____.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권 3호 (2011).
-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2007.
-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김형민.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2005.
- _____.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2009).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2008).
-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2007.
- 송백석.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 22권 2호 (2006).
- 이 근.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11.
- 이혜정. “(자주의) 운명인가?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2011.
- 장덕진. “정치권력의 사회적 분해: 자원 권력과 네트워크 권력.” 김상배 편.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2009.
-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 _____.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Burt, Ronald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Nan Lin, Karen S. Cook, and R. S. Burt, Aldine de Gruyter,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Transaction, 2001.
- _____.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astells, Manuel.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Chai, Sun-Ki and Mooweon Rhee. "Confucian Capitalism and the Paradox of Closure and Structural Holes in East Asian Firm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1 (2009).
- Coleman, James S.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Cooper, Andrew F. ed.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London: Macmillan, 1997.
-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 Freeman, Linton C.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1977).
- _____.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1979).
- Galloway, Alexander R.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2004.
- Galloway, Alexander R. and Eugene Thacker.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7.
- Goddard, Stacie E.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2009).
- Gould, Roger V. and Roberto M. Fernandez. "Structures of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1989).
- Granovetter, Mark 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3).
- Grewal, David Singh.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Hafner-Burton, Emilie M. and Alexander H. Montgomery. "Power Posi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2006).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2009).
- Holbraad, Carten.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 Kahler, Miles, ed.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Maoz, Zeev.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Nexon, Daniel.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2007).
- Nye, Joseph S.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Pachucki, Mark A. and Ronald L. Breiger. “Cultural Holes: Beyond Relationality in Social Networks and Culture.”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10).
- Ping, Jonathan H.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Hampshire and Burlington: Ashgate, 2005.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White, Harrison C. *Identity and Control: How Social Formations Emerge*. Secon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Middle Power's Diplomatic Strategies in the Perspective of Networks :

Applying Theories of Structural Holes and Positional Power

Sangba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pplies network theories, which gain much attention recently in the field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to theoretical discussion concerning middle power's diplomatic strateg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understood the concept of middle power and surrounding structure in terms of individual actor's attributes or power resources possessed by those actors. Thus, they have neglected to understand the category of middle power in the context of network as structure, which are constituted by actors themselv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ories of "structural holes" and "positional power" that provide the studies of middle power with theoretical resources concerning structural attributes of networks and actor's positional roles given by such structural conditions. Along with providing a theoretical platform for middle power's strategies, this paper briefly presented some empirical cases of the East Asian regional politics, in which two Koreas and four great powers--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are main players.

투 고 일 : 2011년 6월 7일
심 사 일 : 2011년 7월 7일
심사완료일 : 2011년 9월 14일